10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강원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스무숲도서관	그림은 위로다 -아트메신저 이소영 지음 - 홍익출판사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또 다른 시련이 시작되는 것은 변함없는 세상의 진리다. (p.86)
2	철암도서관	별이 빛나는 밤 / 지미 리아오 지음/ 김지선 옮김/ 씨네 21북스	진한 안개가 걷히길 기다리면, 곧바로 가장 아름다운 별밤을 바라볼 수 있다.
3	뒤뚜르어린이도서관	<나무들의 밤> 바주 샴,두르가 바이, 람 싱 우르베티/보림	"만일 숲 속에서 길을 잃게 되면 셈바르 나무를 찾으세요. 어둠 속에서 황금처럼 빛나는 나무, 어려움에 빠진 생명을 보호해 주는 나무 말이에요."
4	꾸러기어린이도서관	<꿈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 클라스 베르플랑케 지음.	르네가 그림을 그리면 불가능했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져요. 익숙한 것들도 낯설게 보이고요.
5	앞짱어린이도서관	반 고흐, 영혼의 편지/예담	이 감옥을 없애는 게 뭔지 아니? 깊고 참된 사랑이다.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상의 가치이며, 그 마술적 힘이 감옥 문을 열어준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다. (p.25)

10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경기북부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예다움도서관/백정희	인포그래픽 제인 오스틴/소피 콜린스/넥서스	한 명의 예술가를 수많은 아이콘의 집합체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작가와 작품세계가 우리의 문화와 의식 속에 얼마나 녹아들어 있는지 더욱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것이다.
2	화전작은도서관/임희정	빈센트 나의 빈센트 /정여울/21세기북스	빈센트는 테오에게 이렇게 썼다. "우리는 되도록 더 많은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해. 진짜 힘은 바로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란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더 행복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어. 그 사람 역시 가끔은 흔들리고, 의심도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마음속에 신성한 불꽃을 품고 살아갈 수 있지" 그 무엇도 제대로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빈센트는 포기하지 않았다.
3	와이시티 작은도서관/김경진	내가 사랑한 화가들/정우철/나무의철학	"그림에는 화가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지요."
4	그루터기 작은도서관/이병무	음악이 있는 풍경/ 김정환/이론과실천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 숭고한 아름다움을 이룩하는 일. 그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요하는 일인가. 아름다운 당신. 예술세계에서는 현실 정치와 달리, 한 자리를 놓고 여러 사람이 싸우지 않고 각자 자기 세계를 이루면서, 빛나면서, 그 빛을 경쟁한다. 그것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스스로 더욱 열리려는 경쟁이기도 하다
5	모당공원작은도서관/김정희	내사랑모드/ 랜스 울러버글/밥 브룩스 사진/ 모드루이스 그림/박상현 그림/남해의 봄날	모드가 시골생활의 즐거운 모습을 그린것은 그런 소박한 즐거움을 그녀가 함께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병과 장애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드의 작품들은 즐거움을 간절히바랐던 그녀의 심정과 어린 시절 아주잠깐 동안만 맛볼 수있었던 경험에 대한 일생에 걸친 그리움에서 나왔다.
6	온가족비전도서관/양수정	그림과 문장들/허윤선/루비박스	"인생이, 인생이...." 그녀가 더듬었다. 그러나 인생이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
7	고양작은도서관/심은경	널 위한 문화예술/오대우 외/(주)웨일북	"예술은 현실을 얼마나 반영해야 하는가?" 아마 인간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이에 대한 논쟁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현실이 어둡고 처절할수록 밝은 빛과 희망을 향해 끈질기게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는 얼룩 없이 균형 잡힌 그림을 그리고 싶다. 지쳐버린 이에게 휴식처 같은 그림을."_앙리 마티스

10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광주지부

	도서관명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책돌이도서관/신화숙	장욱진의 색깔있는 종이그림/김형국 편/열화당	장욱진 화백이 1970년대 중반 이후 주로 종이에 매직으로 그린 그림 83점을 싣고 부인 이순경의 구술기록을 실어, 화가의 가족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김형국 교수의 상세한 해설은 이해를 돕는다. A4정도 종이에 매직이나 크레용 등으로 그린 그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나도 이만큼은 그릴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여 슬그머니 사인펜이나 메직을 꺼내들게 한다. 인터넷 서점은 품절상태이니 오래된 서점에서 구매하거나 거기도 없다면 도서관에 달려가보시기를~
2	광주지부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이온 포크너/중앙출판사	에너제틱한 올리비아는 비오는 날 미술관에 가기를 즐긴다. 가장 좋아하는 그림 앞에 멈춰서서 오랫동안 쳐다본다. 그 그림을 보고 올리비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짐작해는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미술관에는 올리비아가 오분이면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림도 있는데 무슨 그림인지는 모르겠다고 한다. 올리비아는 집에 오자마자 그 그림을 그려본다. 어디에 어떻게 그렸을까?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3	광주지부	미술관에 간 윌리/앤서니 브라운/웅진닷컴	윌리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을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림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윌리는 침팬지예요. 유명한 명화를 패러디한 그림을 그리죠. 윌리의 생활을 그대로 담아놓은 패러디 그림인데 침팬지 가면을 벗고 사람의 뒷모습만 보인 마지막 장면에서 윌리는 침팬지 가면을 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책에 실린 그림 16장의 재미있는 그림과 뒤에 실린 진짜 명화들을 견주어본다면 이 책은 멋진 그림 입문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4	광주지부	마법의 저녁식사/마이클 갈런드/보림	시골집에서 돌처럼 묵묵히 앉아있기만 하는 부모와 지루한 휴가를 보내던 피에르는 이웃 마그리트 아저씨네로 놀러간다. 살바도르 달리가 손님으로 오고 마그리트 아저씨와 함께면 자주 놀던 숲도 다르게 느껴진다. 휘어진 망치로 크로케 게임을 하고 하늘에서 비대신 동물들이 내린다. 저녁 식탁에서는 음식 재료들이 살아 움직인다. 달리 아자씨도 돌아가고 피에르도 집에 와보니 엄마 아빠는 여전히 돌처럼 조용히 꼼짝도 않고 앉아있다.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이 등장하는데 앤서니 브라운의 터널을 읽었다면 아! 이 장면! 하고 더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5	아이숲어린이도서관/문상희	방구석 미술관2 / 조원재 / 블랙피쉬	한국의 10명의 화가를 소개한 책. 한국 화가에 이렇게 무지했다는걸 새삼 알게되었다.
6	책문화공간 봄/위명화	예술 수업/ 오종우/ 어크로스	2017년 가을에 구입해서 읽은 책입니다. 그 후 많은 이들에게 권했던 책이기도 하고요. 이 책에서는 창의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알게 합니다. 시대를 가로질러 살아남은 작품들에서 통찰을 읽어내는 법, 왜 예술은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진 적이 없는지, 보이는 것 너머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등 예술을 가까이 하고 싶으시면 이 가을에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 책 속의 인상 깊은 문장은 창의성은 단순히 남들과 다른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짜 창의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그 대상을 향한 애착이 필요합니다.

10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대구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개인회원/손수정	발레이야기-천상의 언어, 그탄생에서 오늘까지-/이은경/열화당	발레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님 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이라도 궁금하다면 이책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인간이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아름다움이 춤이라면 그 춤들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발레 이야기의 역사를 총망라해 알 수 있는 책입니다.
2	개인회원/김경희	그리니까 좋다/ 김중석 그림에세이/창비	그린 사람의 마음과 느낌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림, 감상자가 각자의 생각을 풀어내고 덧입힐 수 있는 그림, 아직 꺼내지 않았을 뿐 누구에게나 이런 그림을 그리는 재능이 있다 - 작가의 말중에서
3	해봄도서관	베토벤 현악 사중주/ 나 성인/ 풍월당	현악 사중주는 어려운 음악이 아니다. 사중주를 위한 귀를 아직 가지지 못했을 뿐이다. 천의 얼굴을 가졌다는 현악기 네 개가 모였다. 작품은 끝을 알 수 없이 깊고 음악가들의 몸과, 호흡, 본능과 감각도 다 다르다. 그러니 사중주의 세계는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누가 1등인지, 누가 가장 유명한 지를 묻는 순간 귀가 닫힌다. 하지만 그들의 손과 호흡의 나무와 현에 음악적 대화와 드라마에 치열한 정신적 교류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떤 것을 듣든지 늘 새로운 듣기의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현악 사중주를 듣는 귀는 그렇게 돋아난다.
4	그나라어린이도서관	나의 미술관 /조안 리우 /단추	글없는 그림책이다. 엄마를 따라간 미술관에는 거장들의 그림들이 걸려있다. 그러나 아이의 시선은 미술관 안내도, 관람객 아저씨의 문신, 직접 몸으로 만든 그림자에 가 있다. 전시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아이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일상에 소소한 장면에도 예술이 탄생할 수 있다는 작가의 의도가 아이의 시선과 몸짓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10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사무국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채은아	이PD의 뮤지컬 쇼쇼쇼 / 글 이지원, 그림 강모림 / 삼성출판사	뮤지컬은 쇼다. 태생부터가 그렇다. 쇼는 모름지기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어렵거나 머리를 아프게 마드는 건 쇼의 생리에 맞지 않다. 쇼의 도 다른 매력은 현장성이다. 뮤지컬이 영화보다도 만화보다도 재미있는 건 바로 내 눈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기 때문이다. 나는 한마디로 쇼처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책을 쓰고 싶었다. 물론 이 책을 읽는다고 뮤지컬 전문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유명한 작품이라고 남들 따라 아무 공연이나 보던 분들이 취향을 맞게 고르고 예전보다 배 이상의 재미를 느낀다면 충분하다. 뮤지컬이 마음을 탁 놓고 노래와 춤에 몸을 맡긴 채 '즐기면'되는 쉬운 것임을 알게되는 거다.
2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박현진	문명 2 / 베르나르 베르베르 / 열린책들	"너도 방금 느꼈지? 단순한 이미지에 불과해 보였던게 그 함의를 깨닫는 순간 새로운 차원을 획득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술이야." 나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감정은 두려움이나 노여움 같은 차원이 아니야. 성적 욕망과도 달라. 내게는 낯선 경험이었던 웃음과도 질적으로 다른 것 같아. 뭘까, 이 느낌은. 혹시 이런 걸 예술적 감동이라고 부르는 걸까? (p.18)
3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김현실	쉿! 비구름/김나은 글, 장현정 그림/봄개울	까맣게 변한 세상을 본 해는 몹시 화가 났어. 해는 환한 빛을 비춰서 구름들이 더 이상 색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 네 구름은 하얀 구름이 되었고, 색이 없는 맑은 비가 내렸어. 맑은 비는 오랫동안 흘러내렸어. 그 후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산은 산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 스스로의 색을 가지게 됐어. 맑은 비를 맞은 세상이 알록달록한 세상이 된 거야.
4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정예서	반 고흐, 영혼의 편지 / 빈센트 반 고흐 / 위즈덤하우스	고흐라는 화가이자 인간을 만나게 되는 마지막 단계인 책

10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서울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생글작은도서관/정혜리	방구석미술관2/조원재/블랙퓌시	새로운 미술교양의 지평을 연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 20세기 한국미술 거장들의 삶과 작품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
2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힐스테이트 별빛도서관/서하경	키키 키린의 말 /고레에다 히로카즈 마음산책	키키 _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 … 진지함의 토대나 자질은 다들 가지고 있었어. 단, 셋이 있을 때 그걸 누군가가 내보이면 "잠깐, 진지해지는 건 관두자" 했지. 놀자, 놀자, 해왔어. 하지만 무코다 씨가 뒷날 쓴 소설 속의 희극미는 그 시절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는게 아닐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희극성은 노는 동안 길러진 거라고 생각해요.
3	용강동작은도서관/민영옥	빈자의 미학/승효상/미건사	알베르토 자코메티(1901~1966)가 디자인한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의 1961년 파리 오데옹 극장 무대장치, 자코메티는 훗날 이 무대를 회상하며 이렇게 얘기했다. "그것은 한 그루 나무라거나, 나무와 달이라고 여겨졌다. 우리는 밤새도록 그 나무를 가지고 조금 더 크게 만들기도 하고 조금 더 작게 만들기도 하고, 혹은 그 가지를 더욱 가냘프게 만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우리 둘은 서로에게 말했다. '글쎄….' " 앙상한 한 그루의 나무와 어스름한 달빛…. 이 연극무대는 비록 그 내용이 베케트의 희곡을 압축하여 시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코메티와 동일선상에 있는 정신세계였을 것이고 바로 그의 삶에 대한 긴장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4	꿈틀어린이도서관/이소영	방구석 미술관/조원재/블랙피쉬	살아 있는 동안 그림이나 조각 형태의 예술 작품들을 만드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차라리 내 인생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
5	도담도담 작은도서관/권영미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응원할 것이다/공지영/해냄 출판사	엄마도 어느날 시는 천재들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때 시를 포기했다. 모든 예술에는 천재가 있다. 그런데 유독 천재가 없는 장르가 있는데 그게 내 생각에는 소설 같았어. 그건 나의 노력을 요구하는거니까. 감상 : 저자가 자신의 천재성을 겸손하게 나타낸것 같기도 하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표현인 것 같기도 했지만, 시를 천재들의 언어라고 한 표현이 멋지네요.
6	흥부네그림책도서관/김진희	마티스의 정원/사만사 프리드만 글, 크리스티나 아모데어 그림/주니어RHK	이 책을 읽고나면 색종이랑 가위부터 찾게 됩니다. 마티스 작품을 따라해도, 내 마음대로 종이를 오려 작품을 만들어도 재미있어요.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7	작은도서관 웃는책 / 김자영	심미안수업/윤광준/ 지와인	사람들은 미적 감각을 특별한 능력처럼, 타고난 재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반대다. '알아야 보인다'는 말은 '다가서야 느끼고, 경험해야 보인다'로 바꿀 수 있다.
8	작은도서관 함께크는우리 / 장인혜	나무로 빚은 예술 나무 공예/ 손영학/나무숲	그것은 유별나게, 억지로 꾸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나무 공예품들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 공예품은 못났으면 못난 대로, 예쁘면 예쁜 대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저마다의 매력이 있습니다.
9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 유선화	느끼는대로/피터 레이놀즈/문학동네어린이	손 가는 대로 쓱쓱 그렸지요.
10	아름드리작은도서관 /송영순	풍경의 깊이/강요배/돌베개	고목이 있는 정경은 관찰한 즉시 그려서는 안 된다. 시간을 품고 있는 풍경은 그에 대한 사색의 시간이 필요하다. 장엄한 흐름에 압도당한 감정은 연관상념들과 더불어 더욱 풍부해져야 한다. 그것들을 모아 마음한편에 갈무리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면서 발효와 숙성의 기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10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울산경주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아름드리작은도서관(김정숙)	그림 보여주는 손가락/김치샐러드/학고재	그림 보여줘.
2	더불어숲작은도서관/김영선	여행의 이유/김영하/문학동네	미래에 대한 근심과 과거에 대한 후회를 줄이고 현재에 집중할 때, 인간은 흔들림 없는 평온의 상태에 근접한다. 여행은 우리를 오직 현재에만 머물게 하고, 일상의 근심과 후회, 미련으로부터 해방시킨다. (p.110)
3	더불어숲작은도서관/열매	그림의 힘/김선현/에이트포인트	리비도의 추구와 전이라는 무의식적인 기능 하에서, 화가가 작품 속에 빠져들었듯이 우리도 무도회에서 행복해하는 사람들과 합체 되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이 그림의 비밀이라고 하겠습니다.

10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인천지부

	소속 / 이름	책 사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춤추는달팽이도서관 / 최선미		캔버스를 찢고 나온 여자들 / 이유리/한겨레출판㈜	'여성적 리더쉽'은 '부드러운 카리스마', '엄마같은 리더'와 같은 뜻으로 해석된다. 그냥 일을 잘하면 된다고 평가하면 될 것을 굳이 '여성적으로 다르게'라고 판단해야 할까? 버락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에게 '흑인적 리더쉽'이라는 말을 쓴적이 있던가?
2	콩세알도서관/문점숙		그림 같은 세상/ 황경신 지음/ 아트북스	은빛 톤과 부드러운 터치가 잘 살아난 코로의 풍경화들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것은 꿈결 같은 기억의 풍경이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버린 추억들이다.
3	푸른마을함박도서관/ 권정현		방구석미술관2 한국편/조원재/ 블랙피쉬	가볍게 시작하는 한국 현대미술 반고흐는 아는데 장욱진은 모른다? 이 책은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10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충청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범지기10단지푸른작은도서관/오유미	다른 길/박노해/느린걸음	흑백필름의 사진들은 가본적 없지만 추억의 장면처럼 다가오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선이 그대로 담긴 사진 속에서 왠지 마음이 평온해진 한 사람의 변화가 보이는 것은 사진이 좋아서 글귀가 좋아서 일수도 있고 그저 날이 쌀쌀해져 하늘이 높아져서 일 수도 있다. 예술을 이해하고 싶어 여러 책을 보는 것도 좋으나 이런 날에는 그냥 조용히 집에서 시인의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며 없었던 추억에 젖는 것도 좋을 것 같다
2	다올책사랑방 작은도서관/김은정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한 미술관 애서니브라운/웅진주니어	어느 해 엄마의 생일날, 엄마는 온 가족이 함께 미술관에 가자고 제안해요 미술관 가는 길은 신나지 않았지만 빼곡히 걸린 옛날 그림들의 이야기 찾기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느낌 추억들을 나누는 동안 어느새 생기를 되찾고 마음을 열게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선물가게에 들러 펜과 공책을 사갖고, 엄마가 재미있는 그림놀이를 가르쳐 주죠 처음에 어떤 모양이든 하나를 그리면, 다른 사람이 그 모양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에요 정말 멋진 놀이죠 모양 하나로 상상력을 더해 그림이 완성되는 놀이! 훗날 앤서니브라운이 작가가 되는 길에 많은 도움을 준 놀이래요 우리 함께 모양 하나로 상상 속으로 푹 빠져 볼까요?